

# 광주·전남 연일 1만명대...광주, 중증 잔여 병상 11개 뿐

### 의료기관·학교 중심 확산세... 방역수칙은 강조, 거리두기는 완화 정부, 20일까지 사적모임 6명 식당 등 영업시간 밤11시까지 연장

광주·전남에서 의료기관과 학교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연일 1만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시민들에게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면서도, 소상공인 피해해소 등을 위해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점차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에서 걱정했던 중증·중증중 병상 부족이 현실화하는 등 방역 의료시스템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광주 6657명, 전남 5706명 등 1만2363명이 신규 확진됐다. 광주에선 이미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산구 모 요양병원에서 59명이 무더기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216명으로 늘었다. 동구 모 병원에서 37명이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175명으로 증가했다. 또 광산구 다른 모 요양병원에서 21명이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127명이 됐다. 서구 요양병원에서도 12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74명으로 증가했다.

신규 확진자 증가 현상이 위중증 환자로 이어지면서 관련 병상도 거의 꽉 찬 상황이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등에 마련된 중증·중증중 병상 119개 중 잔여병상은 11개(9%) 뿐이다. 중증병상은 총 54개 중 전남대병원 3개만 남았다. 준·중증병상도 65개 중 전남대병원 4개, 조선대병원 2개, 광주시독립원 1개, 빛고을전남대병원 1개 등 겨우 8개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전남도 지역별로 목포 1041명, 여수 833명, 순천

841명, 나주 467명, 광양 402명 등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여수지역 학교에서 25명이 발생하는 등 개학 후 학교발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은 6명으로 유지하되,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밤 11시까지 1시간 연장했다.

최근 신규 확진자가 20만명을 넘어서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급증하는 추세지만 의료대응 여력이 있다고 보고, 누적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오는 13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현행 거리두기 일부를 조기에 완화했다는 게 정부

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감염 위험에 따라 분류한 1·2·3그룹 및 기타 그룹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밤 11시까지 영업을 가능하다.

그중에는 유흥주점·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플라텍·무도장 등이, 2그룹에는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이, 3그룹 및 기타 시설에는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음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본격적인 완화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백신 접종이력 확인을 위해 다중이용시설과 모임·집회 등에 적용했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전면 중단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광주, 대면·입원 치료 가능한 소아 특화 거점병원 4곳 운영

광주시에 확진자 대면 진료와 입원 치료가 가능한 소아 특화 거점 전담병원 4곳을 운영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4일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소아 특화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전국 26곳 중 광주에서 4개 병원이 참여했다"며 "앞으로 지역 아동병원들과 협의해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광산 수완 미래아동병원, 북구 미래아동병원, 남구 미래아동병원, 광산 하나아동병원 등 4곳에서 소아 확진자를 전담 치료하며 중증인 경우에는 전남대병원에서 치료한다. 또 서구 우리아동병원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및 의료상담센터로 운영된다.

전남대병원에서는 임신부 확진자의 응급상황에

대비해 분만 수술실과 산부인과 전용 진찰실도 7일부터 운영한다.

광주시는 8일부터 재택 치료자들이 증상 발현으로 동네 병·의원을 방문할 때 이용하는 방역 택시를 6대에서 10대로 늘리고 운영 시간도 24시간으로 확대한다.

이 시장은 "지난 2년여간 광주 사망자 129명 가운데 99명(76.7%)이 오미크론이 발생한 지난해 12월 이후 사망했다"며 "오미크론 변이는 위중증률이 낮아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기 정도로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며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굿바이 '유니텔'...6월 말 서비스 중단

### '국내 유일 PC통신' 26년 역사 마침표...제휴서비스 3월 종료

국내 유일의 PC통신 서비스인 유니텔(사 진)이 오는 6월 말 26년 역사의 마침표를 찍는다.

6일 IT업계에 따르면 유니텔은 최근 게시한 공지에서 6월 30일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1996년 시작해 웹 포털사이트 등 변경 후 현재까지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부득이하게 종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니텔은 웹툰, 영화, 문자, 팩스, 메일알리미 등 유료 제휴서비스는 전체 서비스 종료일보다 앞서 오는 31일 종료하고 3월분 요금을 다음달 1일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영화 결제는 이달 24일 종료된다.

유니텔은 " 그동안 고객 자료에 대한 백업 기간을 충분히 제공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존에 수신·발신했던 메일은 PC로 백업해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니텔은 1996년 삼성SDS의 사업부로서 PC통신 서비스를 시작해 1997년 개봉한 한석규·전도연 주연 영화 '접속'에서 남녀 주인공이 대화하는 PC통신 채팅방으로 소개되며 인기를 끌었으며 2000년 독립법인으로 변

신했다. 이후 삼성SDS에 재인수된 사업부문을 제외한 채 PC통신 서비스 업체로 남았다가 다음기에 인수된 뒤 사명을 유니텔네트웍스로 바꿨고 2008년 다우기술에 흡수합병됐다.

초기 PC통신은 천리안, 하이텔, 코넷, 나우누리, 넷츠고 등이 있었지만 인터넷 보급 여파로 하나, 둘 사라졌으며 2015년 6월 이후로는 유니텔만 남았다. 유니텔은 포털사이트로 전환해 유료 서비스를 주력 상품으로 내세웠지만 대형 포털 등과 경쟁에서 밀려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니텔은 " 그동안 이용해 준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비스를 지속해 제공해 드리지 못해 아쉽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고객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아직도 있었다는 게 신기하네", "처음 나왔을 때 전용 브라우저로 타 업체와 차별화 되서 신기했었다", "GUI(그래픽사용자 환경)가 PC통신 최초로 도입됐던 기억이 나고 유니텔98로 업그레이드됐을 때 감동이 다시 생겼네" 등 반응을 보였다. /연합뉴스

## "허가권자가 감리 지정해야"... 광주시, 건축법 개정 건의

광주시는 "허가권자의 감리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광주시는 감리비 사전 예치, 대형 민간 건설공사 적정 공사 기간 산정 지침 마련, 착공신고 시 공사 기간 적정성 검토 등도 건의했다.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내놓은 부실공사 적정 대책 중 하나다.

현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200㎡ 이하)과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주택법에 의한 감리대상은 제외)에는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지만, 그 외에는 건축주가 직접 선정한다. 감리자를 건축주가 지정하면 부실시공을 감독하는 감리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광주시는 5000㎡, 16층 이상 다중 이용 건축물, 1000㎡ 이상 준 다중 이용 건축물도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감리비를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예치해 허가권자가 공정에 따라 감리비를 지급하도록 법률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건축주 인의로 공사 기간을 산정해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를 유발한다고 보고 대형 민간 건설공사의 적정 공사 기간을 산정하는 지침도 요구했다.

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조속한 법령 개정을 통해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공사를 적절히 안전 광주 실현에 누수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등산객에게 한표 호소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3일 앞둔 6일 오전 광주시 동구 무등산 입구에서 민주당 선거운동원들이 등산객들에게 한표를 호소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임야 3천평이상 삽니다**  
지분환영. 010-6837-4700

**경기·수도권 투자**  
10억원 이상  
하실분. 010-3605-5000

###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하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없음**  
출장비용 없음

(채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대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 전원주택 개발부지

담양읍, 다가구, 사옥등 다용도 부지, 임야, 매매

- 1 전원주택 개발부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담양 금성. 덕성리 덕진산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신철도로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 2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적벽돌외벽 스톤바둑 129㎡(39평)  
• 토지 8,098㎡(2,452평) 50여년생 명품소나무 8주와 정원수 및 과수 380여주 포함  
• 경관 수려한 숲속 전원주택 10여채 조성 가능  
• 2층 기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조성 가능 매 7억원
- 2 전원 주택용 부지와 식재된 조경수 20여년생 8종 1천5백주 포함**  
•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산철 4차선 I.C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 느티나무, 소나무 등 20여년생 외 7종 1천5백여주 조경수 포함  
• 전원주택단지, 물치장, 펜션, 가든, 커피숍 다목적 사용부지  
• 구내포장 배수로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 9만원
- 3 다가구. 고급주택. 사옥 등 다용도 부지(주거 2종)**  
• 담양읍 양각리 강변 유희마을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3면도로접 남향 교통요지 사장인접  
다가구 사옥 다용도 부지 4,220㎡(1,276평) 매 ㎡ 9십만원
- 4 임야내 휴양림 30여년생 편백 1만여주 식재 마을 변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을 용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시 톨게이트 300m 지점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2,990평) 구내용달생  
전원주택지 귀촌·휴양지 적합 매 ㎡ 6천원  
(2)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임야 62,810㎡(19,000평)  
농림지역 농로접 적송다수자생 생약재배 캠핑장. 휴양지  
농가주택 가능 매 ㎡ 5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상성홀플러스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대표 김용주 010-3454-2389

### 대지매매

광주 상무지구  
치평동 884-6

2,816㎡, 852평

85억

010-6432-5070

### 분묘 개장 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호, 제8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에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임의의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 분묘위치:

위치	분묘개장
광주광역시 북구 태평동 신 21-4	1
광주광역시 북구 태평동 신 21-6	1
- 개장사유: 사유재산권 행사
-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 개장방법: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 안치장소: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로 457 (제이비디온 장제관)
- 안치기간: 1년
- 타: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개장 중 추가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신고처: (주)하늘천 분묘사업팀 (전화: 062-232-0850)

2022년 3월 7일  
공고인(토지소유자): (주)하늘천사업  
대행자: (주)하늘천(062-232-0850)

###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김병수(66015-XXXXXX)
- 최후주소: 순천시 북문길 152, 가동 104호 (매곡동)
- 등록기준지: 전남 순천시 동외동 203번지
- 피상속인 망 김병수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2-나단79호로 신청하여 2022년 2월 24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승속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선고를 하시거나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 2022년 3월 7일
- 상속인: 김성현(020105-XXXXXX)  
광주 북구 방실로 183-1, 401호(두암동)
- 신고기간: 2022. 3. 7. ~ 2022. 5. 17.
- 채권선고처: 상속인 김병수의 주소

### 상행안내

3월13일(일)

▲광주세산악회 3월13일(일) 원주·소금산·간현봉·산행&출발대리전도길·트레킹 \*업무제휴권 05:00, 동아병원05:05, 롯데백점05:10, 광주역05:15, 문예후문05:25, 비엔주차장05:30 \* 다익카페 광주 세산악회 ☎ 010 7794 6920

###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0년

### 光州日報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